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세외수입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전·현년도 징수·채납관리 달성도 및 노력도, 세외수입 납부자 지원 노력도,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 노력도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세외수입 중점관리세목인 차량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납부안내 문자 전송 등 납내 징수율을 신장시켰으며 무재상행 불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한 노력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훈련 성료

고창군이 군립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2022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합숙 훈련이 1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고 28일 밝혔다.

70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주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가 주관했다.

선수단(감독 고영구)은 18일간 고창에 체류하며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고영구 감독은 "선수들이 원활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협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신 고창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대표 합숙훈련 유치는 지역 체육시설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가예산 국회단계서 대거 반영

부안군, 내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14건 추가 확보... 역대 최고액 5815억원 달성

부안군이 역대 최고액인 5815억원을 확보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미반영된 사업 14건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 94억5,000만원(총사업비 3,42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나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중장기 신규사업 억제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에 지자체 예산 축소 등 그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 어려움이 컸다.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과 및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유동수·한병도·이용

호·박정 국회의원 등 주요사업별 상임위 소속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활동을 거쳐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권익현 군수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재선군수답게 폭넓은 정치 인맥과 노련한 예산확보 전략으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던 군 숙원사업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거 반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된 사업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3억원(총사업비 170억원), 국도 30호선(석포~운호) 2차로 개량 2억원(총사업비 487억원), 출포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총사업비 172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13억원(총

사업비 2282억원) 등 총 14건(총사업비 3427억원)이며 모두 신규사업으로 향후 수년간 부안군 미래 발전을 책임질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 신규사업의 경우 시작연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가 보장, 지역 현안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2023년 새만금 세계잡곡미 개최 지원 140억원(총사업비 846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3000만원(총사업비 294억원), 위도 농어촌배가물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5000만원(총사업비 2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 7000만원(총사업비 100억원) 등이 반영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정읍시, 총 200억원 투입 공장형 입주공간 구축 '미생물산업 시설 집적화' 기대

정읍시가 추진하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달 2023년도 최종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희수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온 결실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생물 분야 GMP(우수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공공인프라를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개의 미

생물 분야 기업체들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연면적 7,500㎡ 규모에 공장형 개별 입주 공간을 구축한다. 이곳에는 입주 공간 40실(165㎡)과 미생물 기업들의 공동 활용 장비와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 등이 들어선다.

이희수 시장은 "입주 공간과 공용 장비 등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를 구축해서 미생물 산업 시설을 집적화해 정읍을 미생물 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2017년 개소한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를 중심 미생물 산업 구축에 주력해 오고 있다.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는 전국 220여 개 이상의 농축산 미생물 제품 생산기업에 효능검증과 대량 배양, 산업화 등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계크로마토그래피 등 23종의 복합 미생물 안전성 분석 시스템을 통해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국내 유일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시험분석·인증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천년 부부사랑 정춘가요특구' 새로운 명칭 공모

정읍시가 '천년 부부사랑 정춘가요특구'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천년 부부사랑 정춘가요특구'는 천년의 송고한 사랑과 애뜻한 부부 사랑을 기린 백제가요 정읍시(井邑詞)를 주제로 조성한 정읍시의 대표 관광지다.

신정동 일원에 가요박물관과 민속민가옥, 정읍사여인의 집, 취풍향(누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명칭에 '특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의미가 모호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백



제가요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한 의미와 목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서 정읍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의 명칭 인을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접수(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4층) 혹은 메일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내 최대 스키장 운영사로 잘 알려진 ㈜시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전북 고창군에 3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했다.

'사계절 휴양시설 짓는다'

용평리조트, 고창군에 3500억원 투자 협약

국내 최대 스키장 운영사로 잘 알려진 ㈜시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전북 고창군에 3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했다.

서해바다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급호텔 등이 계획되면서 군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용평리조트 신달순 대표,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평리조트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고, 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최

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용평리조트의 투자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더 이상 스쳐 가는 고창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의 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인프라, 상권이 형성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2029년 예정), 노을대교 개통(2030년 예정) 등이 예정, 향후 고창 서부권 관광의 관문을 바꾸는 핵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법정 문화도시' 사업계획 주민보고회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전북 고창군이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주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의정당에서 '고창문화도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고창문화도시추진위원회, 문화도시시민추진단, 주민연구모임, 문화도시협약기관 및 단체, 고창예총 산하단체 및 문화예술계 인사와 14개 읍·면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설정한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고창군을 우리 문화에 깃든 치유정신을 생활화하는 도시로 브랜딩 하겠다"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실천전략으로 △문화자치생태계 실현 △시민문화력 강화 △고유한 문화경쟁력 강화 △지역자원과 사회연대를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 12개 핵심사업으로 △고창문화습지 △생활문화예술교육 예술가의 붓집 △고창컬처체인 △석정웰파크시티 노인이야기집 △읍·면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의 다정한 사무소 △생태치유문화지리 100과 문화미일 △고창시민연구 문화대장간 △고창(삼양염업사) 100년학교 △고창문화비책 △유류공간 도시재생 협력사업 △치유문화여행 플랫폼 구축 △치유문화마을회관 13과 고창살이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